

##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정 현 주\*\*

### Reading ‘Little Manila’ along Daehangno : Exploring the Conceptualization of Transnational Spaces\*

Jung, Hyunjoo\*\*

**요약** : 본 논문은 탈영역화에 치우친 초국가주의 공간 담론을 시정하고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동시적 과정을 통해 초국가적 공간이 생성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국가적 사회적 장, 트랜스로컬리티, 다문화공간, 초국가적 장소 등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사례지역인 대학로 ‘리틀마닐라’를 해석하는데 접목하고자 하였다. 필리핀이주자들의 주말집거지인 리틀마닐라의 사례연구를 통해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다규모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혼성적 다문화성 등 초국가적 공간의 주요 쟁점을 고찰하면서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을 탐색하였다. 리틀마닐라는 로컬에 착근된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징을 나타내며,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이 아닌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 필리핀이주자들이라는 집단도 내부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집단이며 그들이 상상하는 고향도 단일한 특정 장소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주자들의 주말해방구로서 인식되는 리틀마닐라는 다양한 소수자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이며, 이는 대안적 공간정치와 진정한 다문화주의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주요어** : 리틀마닐라, 초국가적 사회적 장, 트랜스로컬리티, 다문화공간, 초국가적 공간, 필리핀이주자

**Abstract** : The paper attempts to balance the discourses of transnational spaces that have focused on de-territorialization, by emphasizing that transnational spaces are maintained also through re-territorialization.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ransnational social fields, translocality, multicultural spaces and transnational places, I aim to show the way the main issues from the literature help understand an actually existing transnational space, Little Mania in Daehangno, Seoul. I specifically address the dialectic relation between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multi-scalar networks, and hybridity of multicultural spaces in interpreting the weekend enclave of Filipinos in Seoul. I argue that Little Manila is a grounded translocality operating through multi-scaled networks of various actors. Furthermore, it is not a unified space where one dominant Filipino identity stands out. Different Filipinos and Filipinas constitute the space imagining different homes. It is also a multicultural space open to other minorities,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spatial politics based on co-presence of different ‘Others’.

**Key Words** : Little Manila, transnational social fields, Translocality, multicultural spaces, transnational spaces, Filipino transmigrants

### 1. 서 론

지난 십 수 년 간 인문사회과학 담론의 화두를 제공해 온 지구-지방화 논의에서 국가경계를 초월하여 이동하는 자본과 노동력에 대한 논의는 그 핵심이 되어 왔다. 특히 노동력의 공간 이동은 사람과 함께 자원, 아이디어, 감정, 인적 네트워크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송출지와 정착지 양 쪽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며,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촉발시켰다. 이주민의 정착지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를 다룬 기존의 이주연구들은 대개 이주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동화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적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다분히 연구대상을 연구자인 ‘우리’와 분리된 ‘타자’로 상정하면서 차별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jung0072@gmail.com)

필요에서 ‘그들’을 해석하는 식민주의적 태도를 취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 그 자체를 인생에서 특별한 일회적인 경험으로 전제하여 이주 의 전후를 시공간적으로 분리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주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주의 양상도 다원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주는 더 이상 특별한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자 연속적이며 보편화된 경험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고향과 타향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다.

오늘날의 이주가 창출하는 존재의 시공간적 동시성은 대체로 초국가주의 연구에서 주목해왔다. 초국가주의란, 이름 그대로 국가경계를 초월하여 이주자가 양 쪽 국가에 모두 소속된 상태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들에 대한 담론이다. 이러한 담론의 핵심은 초국가적 이주를 개인이 국가 영역을 초월하여 탈영 역화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삶의 양식을 충전하는 기제는 국민국가적 통치가 아니라 본국과 정착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며 이들은 특정 국가의 시민이라기보다는 초국가적 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포섭하는 확장적인 시민권 개념의 정립이 주요 논쟁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국가주의 담론에 비교적 늦게 합류한 지리학자들을 위시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탈영 역화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이들은 국가의 작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인가?(Leitner and Ehrkamp, 2006) 초국가주의는 국가 영향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구적 확장 내지는 변동을 의미하는 것인가?(박경환, 2007) 초국가 시대 영토와 장소의 영향력을 쇠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미가 재설정되는 것인가?

이주라는 과정은 공간적 이동을 수반하며, 이는 곧 경계 넘기, 영역의 재설정, 사회적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초국가적 이주로 인해 형성되는 초국가주의는 근본적으로 공간적 개념을 장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국가주의를 탈영역화와 동일시하는 입장도 기존 경계의 초

월만을 강조했을 뿐 영역 자체의 소멸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경계를 초월한 주체들이 만들어 내는 초국가적 영역도 새로운 영역의 생성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글로벌이라는 스케일이 생성되었듯이 말이다. 다만 이러한 입장의 연구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아니다 보니 공간성을 협소하게 규정하거나 새로운 공간성을 담아 낼 개념을 개발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논의에서 지리학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초국가주의의 공간성에 대한 이론개발과 경험연구의 축적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초국가주의의 공간성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초국가적 공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국가주의 연구 흐름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공간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이를 실제 사례에 접목시키면서 초국가적 공간 연구의 경험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대학로의 ‘리틀마닐라’<sup>1)</sup>라고 불리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주말 집거지(weekend enclave)를 사례로 하여 이러한 공간이 생성되고 뿌리내리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초국가적 공간이 영역을 초월하여 부유(浮游)하는 공간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동시에 지역적으로 뿌리내린 장소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제기되는 쟁점을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스케일과 네트워크, 혼성성과 다문화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례지역 해석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사례지역으로 소개될 리틀마닐라는 소수민족집 거지(ethnic enclave)처럼 상시적인 초국가적 공간과는 달리 일요일 오후에만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 영역과 경계가 가변적이며,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징 역시 다른 이민자 공간에 비해 유동적인 초국가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탈영역화 논의에 치우친 초국가주의의 공간담론을 수정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이미 고착된 상시적 집거지보다 한시적 공간인 리틀마닐라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리틀마닐라처럼 현재진행형인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연구는 초국가적 공간의 생성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내부구성원이 아닌 연구자에게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다는 장점도 있다. 사례연구를 위한 현장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 진 십 여 차례의 방문과 각종 모임의 참여관찰, 관계자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본문에서 인용된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신분이 공개된 대상자들(가령 신부님)은 혼동을 줄이고자 실명을 사용하였다.

## 2.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연구 동향

### 1) 초국가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s)

초국가주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장소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사실 지리학자들보다 다른 인근 분야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개척되었다. 주로 사회학과 인류학 전공자로 구성된 일군의 초국가적 이주 연구가들은 초국가주의란 초국가적 행위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과정들의 흐름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국민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정착지와 송출지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가 초국가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Basch *et al.*, 1994; Glick Schiller *et al.*, 1992). 즉 초국가성은 사회적 과정과 그것이 만들어내고 초월하는 영역성을 통하여 발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국가성이 발현되는 이러한 공간을 장(field)이라는 부르디외(Bourdieu)의 개념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나타내고자 한 공간은 구체적 맥락을 지닌 장소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이 일어나는 추상적 영역을 의미한 것이며, 특히 국민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초국가적 사회적 장’이라는 개념은 이주의 양대 지역인 송출지와 정착지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안된 용어로서, 비록 ‘장’이라는 은유에 가까운 표현을 썼지만 이주의 공간성을 반영한 개념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그 공간성에 대한 고찰보다는 그러한 공간을 창출한 사회적 관계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초국가주의의 공간성에 초점을 둔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개념화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우선 초국가주의를 기본적으로 국가 경계와 영역성의 해체와 재설정을 요구하는 과정

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간 창출과 경계 넘기가 초국가주의 작동의 핵심 과정이라는 풍간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실제로 이후 진행된 많은 초국가주의 연구가 초국가적 공간과 영역성에 대한 연구라는 사실은 이러한 개념화의 영향력을 설명해 준다. 반면 ‘국민국가 너머’를 의미하는 ‘초국가주의’는 그 용어의 한계상 국민국가의 공간성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주의 다양한 공간성과 스케일을 포착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 이상의 공간적 개념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초국가적 사회적 장’과 그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 국’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나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양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초국가주의의 작동이 단순히 양 국가 간의 경계를 오가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스케일에서 다양한 영역성을 형성하며 구성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

‘초국가적 사회적 장’이 다소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초국가주의의 공간성을 함축하고 있다면, ‘트랜스로컬리티’는 초국가주의가 발현되고 있는 상호 연관된 장소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초국가적 사회적 장’을 보다 구체화시킨 개념이다. ‘초국가적 사회적 장’이 조명하고 있듯이, 초국가주의는 본국과 정착국을 연결하는 무수한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관계망은 특정 지역들(localities)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초국가주의 담론을 생산하는 주요 학자 중 하나인 인류학자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본국과 정착국의 영토적 경계를 초월하여 이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한계역 공간(liminal space)을 ‘트랜스로컬리티’라고 지칭하였다(Appadurai, 1996). 그에 의하면 초국가주의 시대에 월경하는 이주민들의 초국가적 수행은 바로 지역을 생성하는 것이다. 원격지 두 지역이 속해 있던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긴밀히 연결되어서 초국가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 초국가 시대로컬리티의 생산 양식임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켰다

(Liechty, 1996; Mandaville, 1999; McKay and Brady, 2005). 또한 트랜스로컬리티의 구성원들은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두 지역에 모두 속해 있는 양가적 정체성을 지니며 이것이 초국가적 이주자(transmigrants)를 과거의 이주자들과 구분해 주는 핵심적인 특징임이 강조되기도 하였다(Basch *et al.*, 1994; Conradson and Mckay, 2007; Glick Schiller *et al.*, 1992, 1995; Goldring, 1998; Liechty, 1996; McKay, 2007; Smith and Guarnizo, 1998).

트랜스로컬리티는 영토와 정체성(또는 소속감)이 이접(離接, disjuncture)하는 초국가 시대의 대표적 현상으로(Appadurai, 1996), 고착된 영토와 주권을 결합시킨 근대국가 이념에 도전장을 내미는 새로운 공간 관계이다. 초국가적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본국에 남겨놓은 채 이민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영토를 만드는 이산 공동체들은 대표적인 탈영역화된 주체들이다. 이들은 물리적으로는 수용국 사회에 속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회의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괴리되어 있으며 인종적으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고향은 여전히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근원이며 이들이 이민의 땅에서 만들어 내는 이산 마을들은 이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영토를 물리적으로 구현해 낸 새로운 고향이다. 국가 경계를 뛰어 넘어 지역(고향)과 지역(정착지)을 연결하면서 양 지역을 바탕으로 귀속감을 만드는 행위는 영토성과 주권을 통해 국민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근대적 정체성 만들기에 대한 도전이다.

트랜스로컬리티는 지리학이나 문화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다른 개념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대표적으로 이산마을(diasporic neighborhoods)과 종족집거지(ethnic enclave)는 트랜스로컬리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특정 종족 집단의 공간적 집적에 방점을 두면서 공간의 형태적 특징을 부각시키는 용어이다. 학문적 용어라기 보다는 일반적 용어로 널리 쓰이는 이산마을은 이민자들의 주거공간을 전제하는 용어로서 정주기능이 없는 한시적 이민자 공간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학제에

서 이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종족집거지는 도시 내의 섬(enclave)처럼 주변과 분절된 경관을 지칭하는 형태론적 명칭이다. 따라서 명칭 자체가 형태적이며 가변적인 공간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종족이 특정 영토를 점유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수집단들의 한 영토내의 공존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트랜스로컬리티는 이민자 공간의 속성 및 과정을 전달하는 용어로서 특정 종족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들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는 용어이다 (Appadurai, 1996). 특히 탈구와 초국가적 연계망 등 세계화로 인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공간적 동시성을 근간에 둘으로써 이민자 영토에 대한 정태적 접근과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로컬리티의 생산과 로컬간의 관계망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를 주장하는 트랜스로컬리티 개념은 장소의 구체적 조건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인식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이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트랜스로컬리티들 간의 연계만을 강조한 나머지 각 커뮤니티가 마치 부유하는 공간처럼 나머지 장소들과 괴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랜스로컬리티 개념을 고안한 아파두라이도 그 정의에 있어서 정착지의 다른 장소와의 상호작용보다 국경 너머 다른 장소들과의 연계가 핵심적인 생성요소라고 트랜스로컬리티를 규정한 바 있다 (Appaduri, 1996, 44-45). 그가 예로 든 대표적인 트랜스로컬리티는 국경지대, 관광특구, 경제특구, 망명자 캠프, 이민자 거주지 등 국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거나 주변 지역과 작동기제가 다른 지역이다. 앞에서 소개한 ‘초국가적 사회적 장’도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공간의 네트워크만을 강조한 채 초국가적 수행과 교류가 일어나는 특정 장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변지역과 어떤 연관 속에 뿌리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이론적 공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개념에서 커뮤니티의 생성과 정착의 핵심과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초국가주의 논의에서 주목하는 이민자들의 공간들은

초국가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인 동시에 초국가적 수행을 매개하는 통로이다.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이 공간들을 통하여 본국과 정착국에 접속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소의 특수성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장소의 특수성과 우연성이 결합하여 이민자들의 정착경험을 특징짓는 과정이 바로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어 자신들이 귀속해 있던 영토와 결별하여 부유하는 과정을 탈영역화라고 한다면 재영역화는 새로운 땅에서의 뿌리내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랜스로컬리티 접근은 국민국가 영역과 그 영역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과의 분리라는 탈영역화 과정에만 주목한 나머지 새로운 정체성이 다른 영토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에 긴밀하게 작동하는 재영역화 과정을 간과한 것이다. 아파듀라이의 트랜스로컬리티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한국적 적용을 모색한 권종화(2005)도 “로컬리티는 월경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과 함께 옮겨지는 것이며 옮겨진 로컬리티는 이주민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고향과 정착지 간의 연계이자 정착지 내에서의 관계망은 실제로는 분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화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재영역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맥락, 장소적 조건을 고려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재영역화는 어찌 보면 탈영역화와 상반되는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다. 초국가적 이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새로운 땅에 뿌리내린 이민자들이 송금과 가족 관계망 등을 통하여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본국으로부터의 연쇄이주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됨을 규명하였다. 여기서 재영역화는 탈영역화의 동인이 된다. 즉, 탈영역화와 재영역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대치되면서도 상호 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둘째, 초국가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의 이주정책이나 제도는 여전히 현재의 이주 지형을 특징짓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다. 특히 노동이주 송출을 국가 전략으로 삼는 필리핀의 경우, 이주자들의 경험과 이주의 역사는 근대 필리핀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민자 공

동체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입국의 이민자 수용제도와 전출국의 이민자 송출 정책 등 국가가 이민 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국가는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석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배제가 아닌 변화된 개입전략과 영향력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컬과 트랜스로컬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지닌 이분법적 스케일 인식과 유사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즉 로컬과 ‘로컬너머’라는 분절된 스케일 인식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스케일과 그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과정들을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 초국가적 이주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과정이 아니듯 트랜스로컬리티 역시 로컬의 경계만을 넘어서 형성되는 장소가 아니다. 트랜스로컬리티가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초국가주의 용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에 편중된 분석단위를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면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분석의 단위를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충위의 장소에 대해서도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귀결일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를 벗어나려는 논의가 결국 국가에 한정되는 초국가주의의 역설이 지역에 대해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역 대 지역 너머, 또는 국가 대 국가 너머라는 이분법 대신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들이 상호 접합되는 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로컬리티 연구는 초국가적 공간의 속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여느 장소와 달리 초국가적 공간은 다른 초국가적 공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과, 이민자들의 일상적 활동이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특정 장소들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또는 세계화의 구체적 발현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리틀마닐라를 비롯한 다양한 초국가적 공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 스케일을 지나쳐 로컬과 로컬간의 상호작용만을 강조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 위에서도 말했듯이 개념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로컬과 국가를 상호 대립되는 분리된 차원으로 이해하는

이원론에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로컬과 국가는 분리된 스케일이 아니며 상호구성적인 관계를 이룬다. 다만 분석을 위해 개념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대립체가 아니다. 로컬리티의 작동과 속성 중 상당수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역시 로컬 바깥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실체가 아니라 바로 로컬리티들의 구성체로 볼 수 있다.

### 3)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s)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는 최병두(2009)에 의해서 최근 제기된 것으로 초국가주의 담론의 국내적 수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병두(2009)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국가 스케일에서 문화적 하위집단들의 공존을 보편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현상의 장소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개념을 주창하였다. 즉 다문화공간은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이주과정 및 이주민의 정착과정에 합의된 공간적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다문화주의가 전 국토에서 균등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로컬을 중심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트랜스로컬리티 논의의 연장선에 있지만 지방간의 접합뿐만 아니라 지구-지방화 과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장소의 생산을 논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공간 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넘어서고자 하는 다문화주의, 특히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와 그 문제점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1970년대 다문화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이민의 국가 캐나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Mitchell, 2004). 그 후 이민자의 증가라는 공통된 현안에 부딪힌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국가통치이념으로 확립하였다(오경석, 2007). 이들 나라에서 다문화주의는 급증하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령 미국의

Affirmative Action)를 이끌어 낸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촉매제였다. 이러한 변동은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정착민과 새로운 이주민들 간의 정체성의 정치와 이주민들의 정치적 운동이 시민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치열하게 개진된 가운데 대대적인 국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둘러싼 사회 각 집단들 간의 갈등은 이민자들과 소수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논쟁으로 귀결되었다. 그 대표적인 논쟁이 이민자의 시민권, 또는 초국가 시대에 걸맞는 시민권 개념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 담론은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이해 집단들 간의 갈등과 정치, 타협의 산물이다. 이는 다문화주의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양산해 내었다.

서구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더불어 국가 복지 예산의 대규모 삭감 및 경쟁 위주의 예산 분배로 정치사회 체제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의 이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찌감치 용도폐기 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Mitchell, 2004b) 이조차 신자유주의적 대세를 거스리지 못한 채 소수의 의견으로 묻혀갔다. 신자유주의와 공존하기 어려운 다문화주의의 이상을 현실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와 추진력이 절대적인데 서구의 국가는 그러한 동력을 상실한 채 탈다문화주의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뒤늦은 다문화주의 수용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부하에서 다문화주의가 추진되는 독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오경석(2007)은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이 시민사회 동력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관주도로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주도의 탈국가화가 오히려 민족의 신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희경(2007)은 더 나아가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결혼 이주여성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에 다름 아님을 주장하는데 그 증거로써 다문화 교육이 주부와 며느리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으며, 소수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사회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소수민인 화교는 다문화주의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한계를 지적한 이상의 연구들과 별도로 대부분의 국내 정책 연구들은 다문화주의의 원칙에 동조하면서도 동화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의 출속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내어 놓았다(장미경, 2005; 천선영, 2004).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들의 비판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첫째, 국내 다문화주의 연구의 절대 다수는 외국인 이주자라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지만 이들의 인권과 국내 정책적인 논의에 힘몰되어 보다 거시적인 이론적 연구, 가령 초국가주의의 논의 등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초국가 시대 국민이 어떻게 규정되며 국경을 횡단하는 이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관주도의 가부장적 다문화주의는 민족, 젠더, 국가의 관계가 새롭게 재조정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초국가주의 담론에 의미 있는 논쟁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둘째, 현재 다문화주의 논의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이주민 집단과 소수민을 여전히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아직 소수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문적 연구보다 관주도의 정책연구가 선행하여 의제를 장악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학문적 연구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거나 정부가 제시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다양한 소수집단이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문화’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남용 역시 정부의 구호를 겸증 없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가 발현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생략된 채 특정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 연구로 대부분의 연구가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 대상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이주의 세계화와 여성노동의 초국가적

횡단을 다루는 연구들을 수용하여, 이주의 거시적 배경에서부터 이주여성들이 겪는 경험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충위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고찰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시해주는 이주의 공간성과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기된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은 다문화주의와 초국가주의 연구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제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 경험적 검토와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최병두(2009)는 ‘다문화공간’을 지구-지방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문화적 교류와 그와 관련된 정책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면서, 초국적 자본의 문화공간인 다문화공간을 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유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주의란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문화논리에 불과하다는 Žižek(1997)과 Mitchell(1993)의 비판을 수용하여 문화담론로 치장된 다문화주의가 실상은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인 노동의 국제이동을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문화적 장치임을 강조한 최병두(2009)는 다문화공간을 인정투쟁의 장으로 전유하자는 급진적인 공간정치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러한 후기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은 다문화공간을 포함한 초국가적 공간에 대한 낭만주의적이고 개인화된 인식을 지양하고 이러한 공간이 창출되는 맥락을 고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초국가주의에 내재된 이론적 불균형을 시정해 줄 수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결합하여 초국가적 공간의 작동을 설명함으로써 출발선이 서로 다른 담론들을 이론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선형적으로만 제시되었지 후속연구가 미진한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은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왜 공간적 개념이 급진적 실천을 담보한다고(또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전지구적으로 작동하는 자본에 대항하는 차별화된 저항으로서 지역정치가 강조되는 논리와 동일선상에서

다문화공간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정치의 산실로 가정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문화공간의 어떤 점이 대안적 윤리를 짹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많은 초국가주의 연구가들은 초국가적 공간의 혼성성(hybridity)과 주변성(marginality)이 중심을 해체하고 지배담론을 전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Mitchell(1993, 1997)과 Jackson et al.(2004)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혼성성과 주변성은 그 자체로 급진적이지도, 정치적 실천을 자동적으로 담보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공간이 자생적으로 (급진적) 혼성성과 주변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정부와 자본에 의한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가 급속히 보급된 한국의 경우, 그 혼성성과 주변성조차도 상업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조성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서래마을이라고 본다). 따라서 혼성성과 주변성으로 인해 중심을 해체할 가능성이 어떤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급진적 실천을 담보해내는 공간의 특성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현실세계에서 작동하는지 또는 동원해낼 수 있는지 등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가 자칫 정부의 다문화담론 프레임 안에서 소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 정부가 유포하는 다문화주의의 담론의 연장선에서 그러한 다문화주의가 발현된 공간이라는 표면적 인식은 ‘다문화 공간’이 제시하고자 한 이론적, 실천적 범위와 내용을 크게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공간’이 문화담론으로 포장된 초국적 자본주의 공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문화용어를 차용한 것은 문화담론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문화주의의 담론을 지배하는 정치적 수사까지 용인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지닌 실의(출속적 정책과 편중된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대안개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흡인력 있는 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 선택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점은 정확히 무엇을 ‘다문화’라고 규정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구분하는 ‘다문화’의 기준은 복수 문화의 공존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외국인의 존재 유무, 또는 국적자와 비국적자의 섞임, 특히 열등하다고 규정되는 종족과 자국민의 병존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서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와 구분되는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반면(가령 enclave), 한국에서는 ‘공존’의 의미가 강한 공간으로 명명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적 수사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는 진정한 ‘공존’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어느 곳이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자’의 문화는 늘 침가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즉, ‘저들만의 공간’이 아닌 ‘저들도 때때로 사용하는 공간’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결혼이민여성의 가정도, 외국인 학생이 섞여 있는 대학 캠퍼스도, 프랑스 비즈니스맨이 이따금씩 출현하는 서래마을도, 점점 조선족이 세를 불려가고 있는 가리봉동도, 주말에만 잠시 나타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혜화동 로터리 리틀마닐라도, 그야말로 다국적 구성원들의 집합소인 이태원과 안산시 원곡동도 전부 다문화공간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한국적 ‘다문화’ 용어의 쓰임새는 그 말 자체로만 보면 타자 문화의 동등한 인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그래서 오히려 당혹스러운) 실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는 ‘자아’를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자아가 타자를 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전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러한 다문화주의는 식민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특정 종족이 점거한 공간조차 ‘다문화’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관행이 바로 그러한 인식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단일한 타자의 존재조차 복수의 문화, 즉 다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다문화’의 식민주의적 발상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지닐 수 있는 급진적 실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종주의적 색채를 떠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다문화’는 다른 종류의 ‘자아’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있기 때문

이다. 현재는 외국인, 비국적자, 제3세계 노동자 등에 한정되어 쓰이면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이 용어는 사실 인종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수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서구의 다문화정책은 인종적 통합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여성 등 다른 차원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다문화공간’ 담론이 대안적 실천과 윤리를 모색하기 위해 제안되었다면, 공간의 개념화와 더불어 무엇이 ‘다문화’인지, 어떤 주체가 다문화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열린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4) 초국가주의의 장소성을 강조한 연구들

이상에서 소개한 개념들은 초국가적 공간을 기준의 국민국가 영역성을 해체하는 초국가적 또는 초지역적 네트워크의 결과물로 인식하거나 초국가적 자본의 지구-지방적 작동의 결과물로 설명하였다. 즉 초국가적 공간이 어떤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로 생산되거나 그러한 과정의 배경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가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초국가주의가 특정 장소를 통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최근 국내외의 지리학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 초국가주의는 장소에 배태되어 있고 그 자체가 장소를 통해 작동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 (Guarnizo and Smith, 1998), “가장자리에 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in the margins)” (Mitchell, 2004a), (위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아닌) “중간지대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the middle”(Smith, 2005, 241), “사이에 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in-between)”(Jackson et al., 2004,8), “초국가주의 뿌리내리기”(박경환, 2007), “초국가적 장소”(고민경, 2009) 등의 표현에도 드러나듯이, 초국가주의는 기준의 영역을 해체하면서 부유하거나 여기와는 다른 제3의 공간 어딘가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장소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착근하여 그 장소를 통해, 또는 바로 지금 여기에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Mitchell(2004a)은 벤쿠버와 홍콩을 연결

하는 초국가주의의 발달을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이민자를 흡수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과 금융규제 완화,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벤쿠버 지역 단체의 활약 등이 결합하여 홍콩-벤쿠버를 연결하는 초국가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캐나다의 신자유주의 전환을 합리화시키고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하였다. 장소가 지난 하부시설, 역사적 유산, 관성 등, 즉 장소성이 특정한 종류의 초국가주의를 발현시킨다는 주장은 고민경(2009)의 최근 사례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고민경(2009)은 낮은 진입장벽과 사회문화활동의 장소적 뿌리내림의 결과로 이태원이 최근 외국인들의 초국가적 경제활동의 허브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초국가적 활동은 이태원과 모국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장소들과의 연관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박배균(2009)은 기준의 초국가주의 연구들이 공간적 관점의 결여로 인하여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구체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녀왔다고 지적하면서 공간적 관점으로 이를 재해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Jessop et al.(2008)의 사회-공간적 관계의 4 가지 핵심적 차원을 초국가주의 연구에 차용하여 초국가적 이주 경관을 장소(Place), 영역(Territory), 네트워크(Network), 스케일(Scale)이라는 상호중첩된 공간개념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박배균, 2009). 이러한 설명 틀은 초국가적 이주의 공간성이 특정한 장소성이나 이주자들의 네트워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역화와 다중스케일적 작용 등 복합적인 공간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준의 영역을 초월하고 해체시키는 초국가주의의 탈영역화에만 주목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초국가주의는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동시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펠연적으로 특정 장소가 지니는 국지성과 우연성이 초국가주의의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초국가주의를 논하기보다 특정 시공간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초국가주의의 양상들을 고찰함으로써 초국가주의 담론을 생산하려는 것이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접근법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 소개될 리틀마닐라 사례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있지만 앞서 고찰한 개념들(트랜스로컬리티나 다문화공간 등)을 함께 발전적으로 통합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현장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사례와 또 다른 쟁점들은 후속 출판을 통하여 소개가 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국가적 공간 담론들을 통하여 리틀마닐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쟁점과 한계가 제기될 수 있는지, 리틀마닐라를 규정하는 초국가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3.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주말영토, 리틀마닐라

리틀마닐라는 혜화동 로터리에서 시작하여 혜화역 방향으로 백 여 미터 정도에 이르는 구간에 일요일 오후마다 형성되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주말 영토를 지칭하는 별칭이다. 이곳은 국내의 다른 소수민족 집거지와 비슷하게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곳을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조차도 필리핀이주자들의 영토가 주말에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주류 사회의 시선에서 볼 때 리틀마닐라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해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리틀마닐라의 구성원들은 더욱 자유롭게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해당 지자체인 종로구청도 불법으로 규정된 노점은 무조건 둑인할 수만은 없기에 형식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정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인 규제를 보류한 채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또한 노후한 도시의 슬럼이 아닌 문화예술과 젊음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학로에 소수민족 집거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도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주말이라는 한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대학로라는 장소가 지닌 특징(개방적이어서 진입장벽이 낮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점 등)이 이러한 초국가적이고 다문화적인 공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리틀마닐라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 뒤, 초국가적 공간으로서 리틀마닐

라의 사례가 초국가주의 공간담론에 대해 시사하는 주요 쟁점을 탈영역화, 네트워크, 혼성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초국가적 공간으로서 리틀마닐라의 형성과 작동

보통 문화예술과 상업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학로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가진 지점은 상업, 문화 시설이 밀집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4번 출구 주변일 것이다. 대학로의 끝자락인 혜화동 로터리는 혜화동 성당과 동성중·고등학교, 일부 상업시설이 있을 뿐 대학로 내에서는 비교적 한산한 주변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곳은 새로운 구성원들로 인하여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소동은 일요일 오후에만 한시적으로 일어났다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이곳에 주말 해방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주체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와 일부 결혼이주자들로 구성된 자칭 ‘필리핀 혜화동 공동체’이다. 필리핀 공동체는 전국의 공장밀집 지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위상에 있어서 이 곳 혜화동 공동체가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혜화동 성당과 필리핀가톨릭센터이다.

전 인구의 대다수가 기톨릭 신자인 필리핀인들에게 성당과 미사는 삶의 핵심적인 장소이자 상징이며 정체성의 실천이다. 따라서 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미사가 드려지고, 규모가 큰 경우, 본국에서 파견한 전임 사역자를 중심으로 가톨릭 센터가 세워진다. 국내의 필리핀가톨릭센터는 필리핀외방선교회에서 한국으로 파견하여 국내 필리핀이주자들의 사목을 담당케 했던 글렌 지오 바니 하론(Glen Giovanni Haron) 신부를 중심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 그 이듬해부터는 서울대 교구가 제공한 혜화동 성당 인근의 성북동 다총주택을 사무실로 이용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알빈 파란타(Alvin Parantar) 신부의 지휘 아래 25명의 성직자와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센터를 꾸려가고 있다. 필리핀가톨릭센터의 전신은 1990년 자양동 성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삼빠기타 필리핀 공동체(Sampaguita Philippine Community)’였다. 올림픽 이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된 초기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자양동 수



그림 1. 미사 후 쏟아져 나오는 필리핀이주자들



그림 2. 필리핀 벼룩시장



그림 3. 필리핀 음식을 파는 노점



그림 4. 필리핀에서 공수해 온 생필품



그림 5. 필리핀 맞춤형 휴대폰 광고



그림 6. 혜화동 성당 건너편 우리은행

녀원 소속의 필리핀 수녀의 도움을 받아 타갈로그어 미사는 물론 송금과 노동관련 상담을 지원받게 되면서 자양동 성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권종화, 2005). 삼빠기타 필리핀 공동체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상부상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고 그 구성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자 서울대교구의 배려로 혜화동 성당으로 이전하여 199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 주 타갈로그어 미사를 드리기에 이르렀다. 그 수도 점차 증가하여, 최초 8명으로 시작한 타갈로그어 미사는 최근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림 1) ([www.nodongsamok.co.kr](http://www.nodongsamok.co.kr)).

리틀마닐라는 혜화동 성당 때문에 현재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실제로 리틀마닐라를 유명하게 만든 것(특히 한국 사회에게)은 성당 옆으로 펼쳐지는 벼룩시장이다(그림 2). 다양한 노점상들

이 빽빽하게 들어찬 이곳은 필리핀에서 직접 공수해 온 다양한 생필품과 음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전화카드와 한국이동통신회사의 필리핀 및 춤형 핸드폰, 불법복제 영화 DVD, 심지어 한국특산품까지 판매하고 있다(그림 3, 4, 5). 대부분의 트랜스로컬리티나 초국가적 장소가 이주자들의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듯이 리틀마닐라의 활동에도 초국가적 상업 기능이 핵심적이다.

이와 동시에 성당 옆의 동성고등학교(카톨릭 부설) 건물 4층에서는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이 열리고, 바로 옆의 카톨릭대학교 캠퍼스 농구장에서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결성한 농구 리그 경기가 벌어진다. 성당 건너편 우리은행은 필리핀 이주자들의 송금업무를 전담하는 일요일 연장 영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림 6〉 인근 건물에는 필리핀 최대 은행인 메트로뱅크(Metrobank)의 출장소가 차려진다. 미사를 전후하여 인근 커피숍과 음식점에서는 필리핀 이주자 단체들의 각종 모임이 열리며, 가끔씩 대규모 공연과 파티 등도 동성고등학교 강당 및 단골호프집 등에서 열린다. 이러한 공식적 활동을 차치하고서라도 미사가 끝난 직후 대학로 일대의 각종 음식점들에서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사교적 모임이 열리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필리핀과 한국을 잇는 상업 및 인적 교류의 활성화는 이곳을 그야말로 ‘초국가적 사회적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 2)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리틀마닐라의 벼룩시장과 그 일대를 가득 채운 필리핀 이주자들만을 보면 이곳이 마치 필리핀의 한 지역을 옮겨 놓은 듯한 트랜스로컬리티처럼 보인다. 그러나 리틀마닐라는 필리핀과 한국을 잇는 네트워크만으로 작동하는 탈영역화된 트랜스로컬리티가 아니다. 리틀마닐라의 생성과 작동에는 로컬에 배태되어 있는 조건들이 긴밀히, 그리고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개입되어 있다. 우선 필리핀 가톨릭센터는 조직적으로 볼 때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노동사목위원회에 소속된 하위분과로서 상부 기관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다. 반면 주임신부와 사제들은 필리핀 가톨릭교회의 외방선교회

에서 파견한 목회자들로서 이들의 훈련, 파송 및 아직은 필리핀 가톨릭교회가 관장한다. 가톨릭(Catholic)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국제적 종교 네트워크를 통하여 양국의 가톨릭교회가 상호작용하여 필리핀 가톨릭센터라는 초국가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조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센터는 본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필리핀 이주자를 대표하는 비정부 단체로서, 50여 개 이상의 국내 소재 필리핀 이주자 단체들 및 국내의 다른 NGO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가령 종교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관련 국내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기도 하며 공익변호사 단체를 섭외하여 매 주 노동관련 법률 무료 상담을 성북동 사무실에서 열게 하는 등 필리핀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뿌리내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선하고 있다(Parantar, 2008, 인터뷰).

그 사무실이 혜화동 성당 인근의 성북동 빌라에 위치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빌라는 서울대교구 소속의 건물인데, 그 일대 지역은 ‘한국의 바티칸’이라고 불릴 정도로 20여 개 이상의 가톨릭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Parantar, 2008, 인터뷰). 즉 필리핀 가톨릭센터는 초국가적 가톨릭 네트워크를 통해 ‘초국가적 종교적 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혜화동/성북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울대교구 지역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천주교 지역네트워크 이외에도 리틀마닐라가 위치한 대학로의 사회적, 물리적 입지도 리틀마닐라의 재영역화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우선 대학로라는 장소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한국사회의 지성과 진보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과 병원을 남겨두고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에도 연극과 공연예술, 젊음이 이 공간을 특징짓는 키워드일 정도로 대학로는 서울내에서도 특별한 문화적 해방구로 인식되는 곳이었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면서 민주화와 진보라는 정치적 담론이 문화담론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학로도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대학이 사라진 지금의 대학로는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일부 시설들이 남아 있을

뿐 여느 유흥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쇠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극과 공연의 메카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 설치된 미술작품과 개성 있는 카페와 건축물들은 이곳을 문화자원이 풍부한 공간으로 인식되게끔 만들고 있다.

개방적이고 젊은 문화공간인 대학로의 장소성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치 이태원이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진입장벽이 낮은 공간이 되었듯 (고민경, 2009) 말이다. 대학로의 끝자락에 자리 잡게 된 리틀마닐라도 주말 오후마다 ‘이국적인’ 풍광을 제공하면서 대학로의 새로운 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많은 블로거들이 필리핀 벼룩시장 체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적지 않은 언론매체들이 서울의 이색공간 중 하나로 이곳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리틀마닐라가 일종의 다문화적 볼거리로서 주류사회에 비춰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종로구청이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일요일 오후 대학로의 필리핀인들은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온 종교인으로서, 그 곳의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영어로 소통하는 코스모폴리탄으로서 그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로 리틀마닐라는 로마,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일요일 오후 비어있는 도심의 광장과 기차역, 인텔리전트 빌딩의 로비를 가득 메운 필리핀 가정부들의 주말집거지(weekend enclave)와는 매우 다른 이민자 주말영토이다. 외국의 주말집거지가 주류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고국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부유하는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징을 보다 강하게 보인다면 리틀마닐라는 대학로라는 지역사회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대학로라는 장소성을 소비하는 착근된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징을 보인다.

많은 필리핀이주자들에게 리틀마닐라는 단순히 미사를 드리거나 고향의 물품을 사러 오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구의 대도시 슬럼가에 형성된 종족집거지들이 주류사회와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서 형성되었고 주거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면, 리틀마닐라는 주거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형성되는 해방구

이다. 미사와 쇼핑 말고도 이곳을 매 주 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미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도 성당 밖에는 많은 필리핀 이주자들이 몰려다닌다. 이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 성당 마당과 길거리, 인근의 식당과 호프집에서 사교를 나눈다. 타갈로그어로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다는 사람에서부터 생활정보나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온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동기를 지닌 이들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필리핀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성하는 원동력으로서 리틀마닐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혜화동 성당 앞에서 모자를 파는 David는 한국에 온 지 14년 된 이민자이다. 컴퓨터 수리업을 하면서 현재 부천에 살고 있는 그는 개신교 신자이며 길음동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매주 혜화동에 온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여기 오면 안심이 되거든요. 여긴 ‘작은 마닐라’ 같아요. 마치 고향같이 느껴져요 … 우리 같은 불법체류자들은 필리핀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요 … 여기는 우리들을 위한 신부님도 있고 성당도 있고 타갈로그어로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고 … 필리핀인을 위한 곳이잖아요. 저는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혜화동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해요.(David, 인터뷰, 2009)

인터뷰 도중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고향에서 공수해 온 모자를 일일이 선물로 주며 인사를 나누는 그에게 모자를 파는 행위는 상업적 행위라기보다는 사람을 사귀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 사교활동인 것처럼 보였다. 미사를 보고 나온 두 친구와 함께 필리핀 음식으로 요리를 하고 마장동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귀가할 예정이라는 그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장보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부천과 길음동, 혜화동, 마장동을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하철이용과 버스 연계가 수월한 입지적 특징은 David를 비롯한 수많은 수도권 거주 필리핀이주자들을 리틀마닐라로 모을 수 있는 현실적 이유

중 하나이다. 4호선 혜화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동대문역은 1호선과, 두 정거장 떨어진 동대문운동장역은 2,5호선과, 세 정거장 떨어진 충무로역은 3호선과 교차하는 등 혜화동은 강북의 핵심적인 교통권과 근접해 있다. 대부분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혜화역을 경유하여 자신들의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즉 이들의 일상공간은 리틀마닐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유지로서 리틀마닐라의 교통의 편의성은 이들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주 6일간 쉴 틈 없이 일하고 이동수단이 매우 제한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에 모든 볼 일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오갈 수 있는 장소야말로 매우 요긴한 입지적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 온 지 16년 차 노동자인 Mark는 자신의 삶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하였다. 집과 직장이 있는 미아삼거리 일대와 성당이 있는 혜화동 로터리 일대가 바로 자신의 삶의 무대라고 하면서 전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자는 일요일 하루의 무대이지만 자신에게는 후자가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하였다(2008, 인터뷰). 전자는 불법 이주노동자로서 차별과 억압을 받는 시공간이지만, 후자는 지역 동문화 회장으로서 활동하며 타 지역 필리핀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신규 회원들에게 생활정보 안내를 하며 필리핀 공동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공간이다. 그는 삶의 두 장(fields)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묘사했다. “전자는 돈(money)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삶의 의미(meaning)를 위한 것입니다.”(Mark, 2008, 인터뷰). 그러나 그는 리틀마닐라에서의 달콤한 휴식과 즐거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주일간의 노동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매 달 메트로뱅크에 들고 와서 고향의 아이들에게 송금하는 돈은 바로 그 고된 노동의 결과인 것이다. Mark와 David를 비롯한 많은 필리핀이주자들에게 리틀마닐라는 일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장소 중 하나이며 다른 일상적 활동과 긴밀히 연결된 통로이기도 하다. 이들의 시선은 늘 고향을 향해있지만 그 삶은 현실에 뿌리박고 있었다. 리틀마닐라는 그들이 꿈꾸는 고향과 연결된 통로이기도 하지

만 한국에서의 삶의 다양한 장소들과 유기적으로 얹혀있는 결절지이기도 하다. 국가경계를 넘어 탈영역화된 리틀마닐라는 다시 서울내의 한 로컬로, 이주자들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재영역화되고 있는 것이다.

### 3) 다규모적(multi-scalar) 네트워크

초국가적 공간으로서 리틀마닐라의 핵심적 작동 기제가 네트워크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초국가주의 담론의 핵심도 바로 양 국가 또는 지역 간의 동시적 연결성, 즉 네트워크였다.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과정도 바로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탈영역화를 강조하는 초국가주의 담론에서 전제하는 네트워크와 재영역화를 강조하는 장소 담론의 네트워크는 작동하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형성되는 거시적 네트워크를, 후자는 특정 장소에 착근되어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네트워크는 상호분리 되지도,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지도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즉 전자가 후자를, 또는 후자가 전자를 결과한 것도 아니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독립되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송금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것이며 NGO와의 연대는 지역적인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혜화동 필리핀 공동체 구성원들과 관련된 NGO는 국내 인권단체에서부터 국제적 환경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 예로 필리핀 해외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A<sup>2)</sup>는 그린피스 코리아의 혜화동 사무실을 일요일마다 빌려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A는 그린피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혜화동 필리핀 공동체와의 접근성을 위해서 일부러 혜화동 소재의 사무실을 구하고자 했는데, 마침 혜화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린피스와 반신자유주의라는 공통된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연대를 할 수 있었고 주말마다 사무실을 빌리는 것도 가능했다고 한다(A 관계자, 2008, 인터뷰). 특히 일요일이라는 시간적 한시성을 서로 다른 두 단체의 공간적 병존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즉, A와 그린피스의 관계는 반신자유주의 가치를 든 초국가적 시민사회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를 통해 그 기초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혜화동 소재 사무실이나 일요일 오후라는 매우 우연적이고 국지적인 조건을 통해 형성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 역시 무조건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의 작동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 가령 필리핀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국 은행인 메트로뱅크의 경우 회현동에 한국 지사를 두고 일요일마다 혜화동 뒷골목의 한 건물 2층에 출장소를 차린다. 한국 외환은행 역시 미사 기간 동안 성당 마당에 위치한 한 건물 안에 출장소를 차린다. 이들 출장소들은 간판도, 안내문도 없이 내부인의 입소문에 의존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내부인이 아니면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들의 송금업무가 미사와 벼룩시장 외에 혜화동 주말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입을 모은다(Mark, 필리핀 노동자, 2009, 인터뷰). 메트로뱅크나 외환은행의 송금업무는 그들의 대필리핀 네트워크나 초국가적 금융 네트워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말 부동산 임대를 위해 혜화동 지역 부동산 시장과 혜화동 성당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홍보를 위해 혜화동 공동체의 다양한 하부 조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했다. 즉 초국가적인 금융네트워크는 지역의 인적/경제적 네트워크와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리틀마닐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네트워크라는 것이 단지 초국가적이나 아니면 지역에 침투되어 있느냐로 양분되기 어려운 점을 드러내고 있다. 초국가적 공간이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동시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구성되듯이, 이러한 과정은 다중적인 스케일에서, 그리고 다중적 스케일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

#### 4) 혼성적 多문화공간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 주는 리틀마닐라는 이들이 한국 땅에서 새롭게 재구성해 낸 가상의 고향이다. 국토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영어, 타갈로그어라는 공용어 외에도

172개의 지방어를 모국어로 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온 그들에게 실제 고향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리틀마닐라는 특정 로컬이 국경을 넘어 또 다른 로컬에 재현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로컬들이 혜화동이라는 특정 장소를 통해 상호교류하면서 필리핀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로컬을 만들어 가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리틀마닐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은 이곳이 ‘순수하게’ 고향과의 연계만으로 형성된 곳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령, 벼룩시장을 통해 팔리고 있는 고향물품 중 상당수는 현지에서 공수해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체 조달한 것들이다. 이들에게는 필리핀 망고 쥬스도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지만 미국산 목육세제나 삼푸, 바디로션, 땅콩버터도 고향의 향기와 느낌을 재현하는 물건들이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물건이 다른 아닌 미국산 생활용품이라는 아이러니는 필리핀의 식민역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식민의 경험으로 인한 문화의 혼성이 ‘필리핀 됨’을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 필리핀 노점상은 그 물건들이 국내의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공급된다고 귀띔하여 주었다. 대표적인 구입처는 남대문 수입상가와 코스트코(Costco)였다(Rosa, 2008, 인터뷰). 또 다른 노점상에 의하면 고객들의 미국산 제품 선호도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미국산 물품들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따라서 일부 물건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Jane, 2008, 인터뷰). 국내 보따리장수들의 긴밀한 연계망으로 운영되는 남대문 수입상가와 미국의 다국적 유통회사를 통해 ‘필리핀 고향’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글로벌 시대 초국가적 공간을 생산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초국적 자본의 작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초국가적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혼성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필리핀 이주자들은 리틀마닐라를 통해 필리핀 고향과 접속될 뿐 아니라 남대문 수입상가나 코스트코와 같은 한국내의 다른 초국가적 공간과도 접속된다. 리틀마닐라가 표상하는 고향이란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이중의 식민역사로 인하여 가톨릭과 영어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필리핀이며, 그것 역시 상이한 문화와 방언을 가진 서로 다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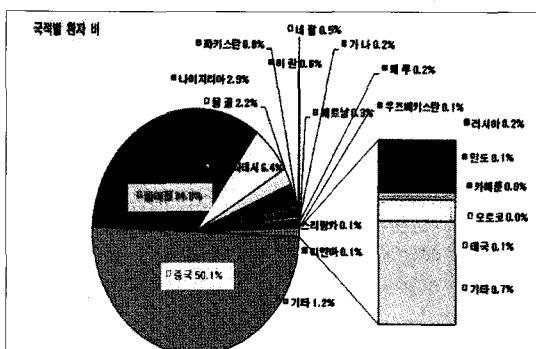
##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을 지칭한다. 필리핀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위조직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문화 성격을 지닌 단체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필리핀 됨'이란 필리핀의 특정 지역에 소속됨과 동일한 의미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리틀마닐라 자체가 이미 필리핀 이주민만의 공간이 아닌 다(多)문화공간으로 변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한 예가 라파엘클리닉의 이용자 현황이다. 라파엘클리닉은 초기에 혜화동 성당에서 동지를 틀었지만(1997년) 처음부터 필리핀 이주민들에게 국한된 단체가 아니었다.<sup>3)</sup> 라파엘클리닉의 설립을 주선한 고 김수환 추기경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가톨릭교수회가 모두 혜화동 성당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됨으로써 리틀마닐라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 라파엘클리닉은 국내외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지향하며 혜화동, 의정부, 동두천을 비롯, 최근 몽골까지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www.rafael.or.kr](http://www.rafael.or.kr)). 1997년 문을 연 이래로 약 112,530명이 다녀간 라파엘클리닉의 이용객 국적비율을 보더라도 중국노동자가 가장 많으며 다양한 이주노동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www.rafael.or.kr](http://www.rafael.or.kr))(그림 7). 매주 다녀가는 환자 중 34퍼센트만이 필리핀노동자라는 사실은 라파엘클리닉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매주 200명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하층계급인 이주노동자라는 계급적 정체성 외

에도 월경의 경험을 갖고 있는 탈영역화된 주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리틀마닐라의 초국가성은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다문화주체의 시공간 공존을 도와주고 있다고 본다. 아파듀라이(1996, 51)가 말한 것처럼 탈영역화된 주체들은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한 곳에 동시적으로 공존(territorial co-presence)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재영역화한 트랜스로컬리티가 또다시 탈영역화하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탈영역화된 주체들의 영토적 공존은 최병우(2009)가 모색한 인정의 정치를 통한 다문화공간의 긍진적 전유를 가능하게 해 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징후가 될 수 있다.

필리핀이주자들의 주말해방구로서 마치 축제의 공간처럼 인식되는 리틀마닐라는 그 내부적으로는 계급과 인종, 젠더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장이기도 하다. 리틀마닐라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도 따지고 보면 필리핀-(젊은) 남성-카톨릭-공장노동자 중심이지 다른 범주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그 곳에서도 여전히 타자일 수밖에 없다. 지역동문화 성격을 지닌 필리핀공동체 하위조직의 회장들은 항상 남성노동자이며, 이들의 친목과 연대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농구리그도 남성들, 특히 젊고 건강한 신체를 지닌 남성노동자들을 위한 행사이다. 여성들과 너무 늙었거나 또는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남성들은 기껏해야 응원석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그들만의 축제의 장에서 배제된다. 엘리트 계층의 필리핀인들은 혜화동 성당의 타갈로그어 미사 대신 명동 성당의 영어 미사를 드리며, 필리핀 여성 이주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자들과 유통업 종사자들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일요일 오후 혜화동에 나타나기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은 리틀마닐라의 초국가성 역시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의 경험과 협상을 통해서 작동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담론은 계급, 인종, 젠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초국가적 공간을 논하는 트랜스로컬리티나 다문화공간 담론 역시 공간이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매개되는 계급, 인종, 젠더의 정치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출처: [www.rafael.or.kr](http://www.rafael.or.kr))

그림 7. 라파엘클리닉 이용 환자의 국적, 2008

## 4. 결 론

대학로 리틀마닐라는 특정 시간대에만 존재하는 주말 공동체로서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영역성을 형성하고 있다. 외관상 보기에는 필리핀의 특정 지역을 옮겨놓은 듯한 트랜스로컬리티처럼 보이지만 리틀마닐라가 재현하고 있는 ‘고향’은 단일한 특정 지역이 아니며 ‘순수한’ 필리핀도 아니다. 어쩌면 ‘순수한’ 필리핀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상의 공동체일지도 모른다. 리틀마닐라를 구성하는 필리핀이주자들 자체가 이미 한국에도, 필리핀에도 소속되지 않은(아니면 둘 다 동시에 소속된) 혼성적 존재들이며, 그들의 필리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수행하는 장인 리틀마닐라도实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로서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장소이다. 고향물품의 구매와 고향친구와의 만남, 고향으로의 송금 등 리틀마닐라가 수행하는 기능은 필리핀과의 연계이지만 이러한 초국가적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리틀마닐라가 지역사회에 착근되어서 한국의 다른 장소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말에만 출현하는 듯한 리틀마닐라는 사실 주중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

리틀마닐라는 지역사회와 분리되어서 초국가적 네트워크만으로 작동하는 트랜스로컬리티가 아니라 탈영역화와 함께 재영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착근된 트랜스로컬리티의 예를 보여준다. 또한 리틀마닐라의 탈영역화와 재영역화는 지구적 또는 지역적이라는 이분법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과 스케일간의 네트워크로 작동되며, 이는 최병두(2009)와 박배균(2009)이 지적했듯이 초국가적 공간 담론에서 스케일 담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킨다.

구성원들조차 자신들만의 공간이라고 믿고 있지 만(David의 인터뷰 참조) 리틀마닐라는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다문화공간이다. 이들의 공간적 병존이 새로운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비슷한 가능성들을 다른 사례에서 열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초국가적인 공간에서 국민국가 통제력이 일정 정도 공백을 보인다는 점과 타

자성에 대한 문화적 관용도가 높다는 점은 대안적인 공간정치의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다. 특히 국민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장을 만들어 가는 이민자들은 시공간의 동시성과 양가성을 체현하는 존재들이다. 계급과 인종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처한 이 시대의 이주노동자들은 글로벌 시대 새로운 하층민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경의 경험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짹트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홍콩과 로마, 싱가포르 도심을 주말마다 장악하는 동남아시아 가사노동자들의 집단적 출현은 그녀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글로벌 도시 이면의 계급, 인종, 젠더 억압의 현실을 전 세계에 노출시키며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잠재적인 저항세력으로 부각되었다(Sassen, 1998). 이들의 젠더화된 공간을 통해 가사노동과 이주노동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홍콩의 경우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최저생계비와 기본적인 노동권을 제도정치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소평과 종교행사, 친구 만나기의 장인 리틀마닐라는 저항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필리핀이주자들의 쉼터이자 축제의 공간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세계도시의 가사노동 여성 이주자들도 정착국의 차별과 제도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인종, 계급적 연대와 차이를 통해 본인들의 정체성의 정치를 공간을 통해 추구한 결과, 그녀들의 존재의 가시화 자체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부각되었다.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주말방구가 다른 동남아 가사노동자들을 포섭하며 인종과 젠더의 공간정치를 작동시켰듯이, 리틀마닐라가 지난 초국가성은 다른 소수자 집단에게도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의 최하층에 위치 지위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지구-지방적 연계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 다문화적 로컬리티를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화 시대 이주노동자들의 공간 만들기가 중요한 문화정치이자 계급정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리틀마닐라가 단순히 필리핀과 한국의 연계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를 통

해 작동하는 혼성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사회적 경계는 늘 빈틈이 있고 가변적이며, 따라서 새로운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 주

- 1) 보통 ‘필리핀노동자거리’라는 명칭이 언론 등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곳이 단순히 거리가 아니라 가변적이긴 하나 영역성을 지니고 기능적 연계를 지닌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이 곳의 구성원은 필리핀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노동자거리라는 명칭은 자칫 인종적, 계급적 편견을 조성할 우려도 있기에 그 사용을 배제했다.
- 2) 이 단체는 국제적 조직을 갖춘 필리핀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단체로서 반정부 운동 등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이름을 가명으로 하였다.
- 3) 이주노동자 무료진료를 모색하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규리 교수(카톨릭교수회)에게 대한적십자사가 혜화동 성당에 자리와 예산을 확보했으나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교수회와 가톨릭학생회가 중심이 된 라파엘클리닉이 1997년 문을 열게 되었다(안규리, 2009, 인터뷰). 이후 규모가 커지면서 옆의 동성고등학교로 이전을 하게 되고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이 되었다. 혜화동 성당에 클리닉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고 김수환 추기경이 당시 은퇴 후 혜화동 성당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안규리 교수와 고친근 신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혜화동 성당에 이를 설립하도록 선처했기 때문이다(한겨레, 2009.3.3).

## 문현

- 고민경, 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 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종화, 2005, 한국 내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58~79.
- 박경환, 2007, 초국가주의 뿌리내리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77~88.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

- 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2~56.
-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159~183.
- 천선영, 2004,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363~380.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
- Appadurai, A., 1996, Sovereignty without territoriality: notes for a postnational geography, in Yaeger, P. (ed.), *The Geography of Identi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40~58.
- Basch, L., Glick Schiller, N. and Szanton-Blanc, 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Conradson, D. and Mckay, D., 2007, Translocal subjectivities: mobility, connection, emotion, *Mobilities*, 2(2), 167~174.
- Glick Schiller, N., Basch, L., and Szanton Blanc, C., 1992,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Ethnicity, and Nationalism Reconsidered*,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New York.
- Glick Schiller, N., Basch, L., and Szanton Blanc, C.,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Goldring, L., 1998, The power of status in transnational social fields, in Smith, M. P. and Guarnizo, L. E.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165~195.
- Guarnizo, L. E. and Smith, M. P., 1998, The locations of transnationalism, in Smith, M. P. and Guarnizo, L. E.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Transaction Publishers, New

- Brunswick, 3–34.
- Jackson, P., Crang, p., and Dwyer, C., 2004, Introduction, in Jackson, P., Crang, p., and Dwyer, C. (eds.), *Transnational Spac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23.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 Leitner, H. and Ehrkamp, P., 2006, Transnationalism and migrants' imaginings of citizenship,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9), 1615–1632.
- Liechty, M., 1996, Kathmandu as translocality: multiple places in a Nepali space, in Yaeger, P. (ed.), *The Geography of Identi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98–130.
- Mandaville, P. G., 1999, Territory and translocality: discrepant idioms of political identit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8(3), 653–673.
- McKay, D., 2007, 'Sending dollars shows feeling'-emotions and economies in Filipino migration, *Mobilities*, 2(2), 175–194.
- McKay, D. and Brady, C., 2005, Practices of place-making: globalization and locality in the Philippines, *Asia Pacific Viewpoint*, 46(2), 89–103.
- Mitchell, K., 1993, Multiculturalism, or the united colors of capitalism?, *Antipode*, 25(4), 263–294.
- Mitchell, K., 1997, Different diasporas and the hype of hybrid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5(5), 533–553.
- Mitchell, K., 2004a, Transnationalism in the margins: hegemony and the shadow state, in Jackson, P., Crang, p., and Dwyer, C. (eds.), *Transnational Spac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22–146.
- Mitchell, K., 2004b, Geographies of identity: multiculturalism unplugg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5), 641–651.
- Sassen, S.,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he New Press, New York.
- Smith, M. P., 2005, Transnational urbanism revisite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 (2), 235–244.
- Žižek, S.,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28–51.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노동사목위원회 www.nodongsamok.co.kr  
라파엘클리닉 www.rafael.or.kr

(접수: 2010.4.21, 수정: 2010.5.14, 채택: 2010.6.3)

## 부 록

### <인용된 인터뷰 대상자 정보 및 인터뷰 일지>

이 름	신 분	성	연령	인터뷰 일자	인터뷰 장소
A관계자 (가명)	필리핀이주노동자	남	30대	2008.07.06.	혜화동 롯데리아
Parantar	필리핀가톨릭센터 주임신부	남	50대	2008.06.27.	성북동 필리핀가톨릭센터 사무실
David (가명)	필리핀이주노동자	남	30대	2009.12.13.	혜화동 성당 입구
Jane (가명)	필리핀노점상, 결혼이주여성	여	30대	2008.07.06.	혜화동 성당 인근
Mark (가명)	필리핀이주노동자	남	50대	2008.07.06. 2009.07.26.	혜화동 커피숍 혜화동 롯데리아
Rosa (가명)	필리핀노점상, 결혼이주여성	여	20대	2008.07.06.	혜화동 성당 인근
안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파엘클리닉 설립 멤버	여	50대	2009.08.15.	이메일 인터뷰